

# 한나라 '세종시 內戰' 대선 판 가른다

## 축소 좌절 땀 '총대 맨' 정운찬·정몽준 대권 행보에 차질 축소 관철 땀 MB 국정운영 탄력...박근혜 前대표 치명상

여권 내 세종시 갈등이 확산하면서 논쟁 결과에 따른 권력지형 재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주도권 확보는 물론 '정운찬 국무총리-정몽준 대표-박근혜 전 대표' 등으로 형성된 여권 내 차기대선 구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세종시 축소 구상이 좌절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 국정 운영에 힘을 쓰지 못하고 조기 레임덕에 시달릴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친이(친이명박)계의 세력 약화를 지켜보아야 한다.

특히 세종시 축소의 총대를 맨 정 총리는 치명상을 입고 대권 가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 역시 여당으로서 세종시 축소 작업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책임을 면키 어려워 대권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여권의 세종시 축소 작업이 불발되면 향후 국정운영에서 박 전 대표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

이 자명하다. 모든 국정에 대해 박 전 대표의 사전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친이계가 긴장하는 이유다.

때문에 정가에서는 이번엔 박 전 대표가 '세종시 원안 고수'를 들고 나온 것을 차기 대권을 향한 '승부수'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 같은 여권 내 대권 구도의 변화는 주류 축을 바탕으로 내몰아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류 축은 이를 통해 새판을 짜서 반격을 도모하겠지만 친박(친 박근혜)계가 당권 접수를 위해 조기전대에 동의해 줄지 아니면 또다시 때를 기다리며 조기전대를 반대할지는 당시 세력판도에 따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조기전대에 나섰다가 패배할 경우 친박계는 탈당까지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세종시 축소가 여권의 의도대로 관철될 경우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힘을 받게 되고

국정개혁 과제로 제시했던 개헌, 선거제도 및 행정체제 개편 등 각종 현안까지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정 총리는 여권 내 대권주자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며 친이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보다 수혜 규모는 적지만 정몽준 대표도 당내 기반을 탄탄히 하며 조기전대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반면, 박 전 대표는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친박계에서는 정치적 계산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세종시 결과로 위상이 위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그만큼 결과에 대한 반대급부도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다.

물론, 박 전 대표가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처럼 말 바꾸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세종시 논란의 결과가 박 전 대표에게 오는 혜택은 적는데 반해 잃는 것이 많아서 정치적 부담이 큰 때문이다. 따라서 주류 축에서 세종시 대책과 관련, 박 전 대표가 돌아설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줄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와 관련, 친이-친박 간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상황이라서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APEC 21개국 정상들이 15일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갖고 '지역연계-자유무역과 열린시장'에 대해 협의한 뒤 리선룡 싱가포르 총리가 정상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경제위기 ‘출구전략’에 국제공조 필요”

### 李대통령 “한국 내년 4~5% 성장”...APEC 총회 폐막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조급한 출구전략의 부작용을 역설해 각국 정상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대통령궁에서 열린 APEC 2차 정상회의에서 '경제위기 극복후 지속성장'을 주제로 회원국 정상들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대응뿐 아니라 소위 '출구전략'의 실시에도 긴밀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면서

출구전략 시행시기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의 실시 시기는 각국의 사정에 맡겨야 하지만 조급한 출구전략에 따른 '더블딥 리세션'(double-dip recession)의 역사적 사례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관련, "내년에 예측대로 되면 4~5%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싱가포르 동포 및 진출 기업인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외국기관에서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3.6~3.9%로 보고 있

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APEC 회원국 정상들은 15일 오후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제시한 특별성명을 채택하고 싱가포르 APEC 정상회의를 끝마쳤다.

APEC 정상들은 특별성명을 통해 세계경제 위기극복과 안정적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국제공조를 계속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균형성장, 포용적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을 21세기 아태지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제시했다.

선언문 채택 후 APEC 정상들은 환승오찬을 끝으로 이틀간의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으며 이명박 대통령도 15일 밤 귀국했다. /연합뉴스

### 정가 라운지

**전남도의회 정례회 개최**  
○전남도의회(의장 박인환)는 16일 '제245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3일까지 3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는 전남도 각 실·국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전반에 대한 도정질문, 2010년도 전남도 및 교육청 소관 예산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조례안 등 안전도 처리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운영 대책' 토론회**  
○전남도의회 지방자치연구회(회장 국영에 의원)는 16일 의회 초의실에서 '외국 재정 파산사례 연구'를 통한 지방재정운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일본 유바리시(夕張市)의 재정운영 파산사례를 토대로 현재 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재건 과정과 방안 등을 놓고 학계와 의원 등 지방재

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신종플루 차별말라" 진정서**  
○진보신당 광주시당(준)은 15일 "공무원과는 노동자들은 신종플루 확진에도 유급휴가가 인정되지 않아 이종고를 겪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 잣대로 피해를 보는 노동자·서민을 대신해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진정서를 통해 "공무원들은 가족 중 신종플루 확진자 뿐 아니라 감염의심자가 있을 경우에도 그 가족이 완치될 때까지 출근하지 않도록 공개처리된다"며 "하지만 노동자들은 유급휴가는 커녕 해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고 정부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진보신당은 또 "노동자들은 정부의 묵인과 방조 속에 신종플루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모든 국민이 신종플루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부의 차별없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박정욱기자 jwpark@

### “영산강 습지보호지역 확대해야”

#### 수질 개선 위해 부분 해수유통 사업도 필요

**'영산강의 어제' 심포지엄**

영산강살리기 사업 과정에 습지 보호지역 확대와 부분 해수유통을 위한 사업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목포대학교 연안환경연구소와 (사)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은 지난 14일 목포대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박준영 전남도지사, 이재백 익산국토관광청 영산강살리기 사업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산강의 어제, 오늘, 미래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자로 나선 호남대 임동욱(생물학) 교수는 "영산강 유역은 동·식물의 서식지 등 환경적·생태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 만큼 생물 서식처 기능 회복 및 적절한 규모의 인공습지 등의 생태복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습지 보호지역을 절대보전지역·보전지역·향상지역·복원 혹은 향상지역 등으로 보전가치를 평가, 습지보호지역을 확대하

는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포대 송재준(환경공학) 교수는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부분 해수유통을 위한 사업검토와 영산강 생명살리기 시범사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포대 고석규(역사학) 교수는 "영산강 분류 및 주변에는 1천482건의 매장 문화재가 분포해 있는 등 누적과 민속자료 등 다양한 문화유산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영산강살리기 사업에 있어 순위가 뒤쳐져 있어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석만(사)한국지방선진화연구원장은 "수질개선, 홍수에방 등 영산강살리기 사업의 명분은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사업 이후 관리적 부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며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진행과 결과, 이후 관리가 성공해 광주·전남이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北 지대함미사일 한 때 가동 징후 포착”

#### 軍 “백령도·연평도 배치 초계함 안전구역으로 이동”

군 당국이 15일 서해 연평도 이북 북한지역에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기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한 때 가동한 징후를 포착하고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오늘 오후 1시경 연평도 이북의 북한지역에 다수 배치된 지대함 미사일기의 사격통제 레이더가 가동되는 징후가 포착됐다"면서 "이에 군은 백령도와 연평도 등 일원에 배치된 초계함 등을 안전구역으로 이동시

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북한 지대함 미사일기의 레이더는 1시간가량 가동하다가 정지했으며 현재 추가 가동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평도 이북 북한지역에는 사거리 46km의 스틱스와 사거리 83~95km의 실크림 지대함 미사일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또 북한 서북지역의 섬과 해안가에는 사거리 27km인 130mm와 사거리 12km의 76.2mm 해안포, 그리고 사거리 17km의 152mm 광곡사포 등

이 집중 배치돼 우리 군을 위협하고 있다.

소식통은 "백령도 등에 배치된 초속경 2개 편대가 긴급 대응 출동을 준비하기도 했다"면서 "비록 오늘 상황은 해제됐지만 북한군이 지대함 미사일기와 해안포 부대에 경계태세를 내리고 훈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참의 한 관계자는 "서해지역의 북한군에 이상징후가 포착되어 전방경계 중이던 우리 함정이 일부 남하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다른 지역에서 특이동향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 보청기 취업점, 전문점, 대리점 (지역 중편)

## “사업 실명회”

난청인구 급증과 국가 지원 해택에 따라, 보청기 취급판매가 한결 유려해졌습니다. 30년의 노하우와 브랜드를 가진 (주)대한보청기가 다양한 모델과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보청기 영업을 원하시는 분을 지원하여, 이에 무자비비용이 거의 없어, 아주 쉽고 간편하게 보청기 판매 또는 사업을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 ◆ 아주 쉽게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판매 약속, 의료기관, 민영원에서 체험)
- ◆ 보다 전문적인 취급을 원하시는 분은 교육을 시켜드립니다. (전문점사업)
- ◆ 규모를 갖춘 대리점 및 지역 출판으로 큰 매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가이드 해 드립니다. (에서 관심있으신 분은 금번 기회에 연락주시면 "사업 실명회"에 참석할 기회도 드립니다.)

"대한보청기에서 매우 쉽고 간편하게 보청기 판매방법을 배우고 나서, 생각보다 매우 쉽고 재미있고, 소확행이 많아와서 매출이 늘어나니 아주 보람있네요."

호남지역 보청기 사업본부 (☎) Tel. 02) 2247-0020

**대한보청기**  
www.medi.co.kr